

금호P&B화학, 풍력발전 소재 국산화

블레이드용 에폭시수지 이어 접착제 국제인증 ... 수입 대체효과 기대

금호P&B화학(대표 온용현)은 풍력발전 블레이드용 접착제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소재 국산화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금호P&B화학은 2009년 풍력발전 블레이드용 에폭시수지(Epoxy Resin)에 이어 1년만에 접착제까지 국제인증을 받아 관련소재를 모두 국산화하게 됐다.

풍력발전용 접착제에 대한 국제인증은 세계적인 선박·해양구조물 재료 기술인증기관인 GL(Germanischer Lloyd)이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발전 블레이드는 길이 40m(2MW 기준) 이상인 거대 구조물로 제작 과정에서 가볍고 내구성이 높은 첨단 소재와 날개 단면을 붙이는 고성능 접착제가 사용돼 앞으로 수요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온용현 대표는 “국제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풍력발전 블레이드 소재의 수입 대체는 물론 저탄소 녹색산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19>